<h1>나 혼자만 레벨업-74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l338c02d392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4화</p>  
<p>'상층은 차원이 다르구나.'</p>  
<p>진우는 악마성에서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보스급 몬스터인 '탐욕스런 볼칸'을 떠올렸다.</p>  
<p>녀석의 칭호는 '하층의 지배자'.</p>  
<p>놈이 있었던 50층을 벗어나자 난이도가 거짓말처럼 급격하게 상승했다.</p>  
<p>하루에 10층 이상, 많게는 20층 가까이 올라갔었던 속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제는 하루 7, 8층을 오르기가 힘들어졌다.</p>  
<p>지금 서 있는 곳은 74층.</p>  
<p>일반 몬스터로 나오는 최상급 악마나 가끔 보이는 고위 악마는 크기부터가 아래층부터 보던 악마들과 궤를 달리했다.</p>  
<p>푹!</p>  
<p>2층 건물만 한 크기의 최상급 악마가 가슴에 단도가 박힌 채 천천히 쓰러졌다.</p>  
<p>쿠웅!</p>  
<p>[최상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,7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진우가 쓰러진 악마의 가슴에 박혀 있는 '바루카의 단도'를 뽑아냈다.</p>  
<p>방금 잡은 놈이 마지막.</p>  
<p>또 한 번의 전투가 끝났다.</p>  
<p>전투에서 승리한 그림자 병사들이 진우 주위로 모여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병사들을 살폈다.</p>  
<p>언데드 군단이니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, 어쩐지 병사들도 지친 기색으로 보였다.</p>  
<p>그만큼 몬스터의 레벨이 높았다.</p>  
<p>그나마 이번 전투는 고위 악마가 끼어 있지 않아서 좀 쉽게 끝난 편이었다.</p>  
<p>'한 마리 한 마리가 보스급과 맞먹네.'</p>  
<p>근거 없이 그냥 체감상으로 해 본 말이 아니었다.</p>  
<p>볼칸을 잡고 얻었던 '탐욕의 구슬'.</p>  
<p>구슬에는 고위 악마 볼칸의 피를 굳혀서 만든 아이템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.</p>  
<p>그 고위 악마라는 말이 볼칸의 등급을 뜻하는 거라면 상층의 몬스터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.</p>  
<p>70층 이상부터는 고위 악마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으니까.</p>  
<p>'단순히 몬스터 레벨만 높아진 거라면 모르겠는데...'</p>  
<p>더 큰 문제가 있었다.</p>  
<p>상층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배경.</p>  
<p>51층 위부터 나오는 도시들은 전부 불타고 있었다. 그리고 불꽃은 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거세졌다.</p>  
<p>70층을 넘어가니 가만히 서 있어도 체력이 줄줄 새어 나갈 정도로 뜨거워졌다.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도가 금방 가득 찼다.</p>  
<p>'악마성'이 아니라 '불타는 탑'.</p>  
<p>여기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예감이 정확했다.</p>  
<p>'...내려가자.'</p>  
<p>이번 공략은 여기까지.</p>  
<p>불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했다.</p>  
<p>'화속성 마법을 방어할 수 있는 아티팩트를 구해 와야겠는데.'</p>  
<p>상급 헌터들이 쓰는 장비들은 가격이 엄청나다. 거기에 보호 마법까지 걸려 있다면 두말 할 필요가 없다. 비싼 건 수백억을 호가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.</p>  
<p>유진호와 같이 다니는 동안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아티팩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긴 했다.</p>  
<p>그래서 보험이 필요했다.</p>  
<p>'이걸 팔면 충분하겠지.'</p>  
<p>진우는 창고에 고이 모셔놓은 '탐욕의 구슬'을 보면서 미소 지었다.</p>  
<p>마법계열 헌터라면 누구라도 군침 흘릴 아이템이었다.</p>  
<p>탐욕의 구슬을 경매로 내놓는다면 가격이 얼마쯤이나 나올까?</p>  
<p>성능만 확실히 입증한다면 마법계열 상급 헌터들이 줄을 설 거 같긴 했다.</p>  
<p>진우는 창고를 닫았다.</p>  
<p>던전에 들어오기 전 목표했던 대로 많은 레벨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다.</p>  
<p>그래서 던전 클리어를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아쉽지 않았다.</p>  
<p>하지만 딱 하나가 마음에 걸렸다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문득 위를 향했다.</p>  
<p>[수집한 영혼의 개수: 9,624]</p>  
<p>'남은 영혼은 4백 개.'</p>  
<p>악마의 영혼을 조금만 더 모으면 퀘스트를 끝낼 수 있었다.</p>  
<p>마침 오늘이 6일째.</p>  
<p>퀘스트 완료까지 하루 정도면 충분했다.</p>  
<p>상층의 유일한 장점은 악마 하나를 잡아도 여러 개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.</p>  
<p>4백 개쯤이야 금방이었다.</p>  
<p>'퀘스트만 끝내고 나가자.'</p>  
<p>그렇게 다짐한 진우가 돌아섰다.</p>  
<p>확실한 목표가 세워져서 그런지 걸음에 더 힘이 들어갔다.</p>  
<p>[1층부터 74층까지 개방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[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마법 엘리베이터, 아니 층간 이동 마법진의 정중앙에 선 진우가 말했다.</p>  
<p>"75층."</p>  
<p>\*\*\*</p>  
<p>이게 웬 떡일까?</p>  
<p>진우는 저 멀리, 층간 이동 마법진 앞을 지키고 있는 몬스터를 보면서 미소 지었다.</p>  
<p>[망령의 인도자 메투스]</p>  
<p>이름을 보아하니 보스급 몬스터.</p>  
<p>검은 로브를 입은 놈이 은색 목걸이를 메고 있으니 확연히 눈에 띄었다.</p>  
<p>'저게 악마 군주의 목걸이겠지.'</p>  
<p>퀘스트 완료하려다 세트 아이템이 파츠 하나를 더 모으게 생겼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가 웃는 이유는 아이템 때문이 아니었다.</p>  
<p>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주는 몬스터라도 잡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.</p>  
<p>진우는 단검 두 개를 손에 쥐었다.</p>  
<p>그리고 앞으로 달려 나갔다.</p>  
<p>곧 검은 로브를 걸친 해골 마법사가 달려오는 진우를 발견했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망령의 인도자 메투스가 침입자를 발견했습니다!]</p>  
<p>놈은 보스급 몬스터답게 순식간에 주문을 완성했다.</p>  
<p>놈의 발밑에 핏빛의 마법진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주변으로 음산한 기운이 몰려들었다.</p>  
<p>[망령의 인도자 메투스가 스킬: '저주받은 목소리'를 사용합니다.]</p>  
<p>메투스의 부름을 받은 언데드 군단이 땅에서 일제히 솟아올랐다.</p>  
<p>그 수가 무려 수천!</p>  
<p>평범한 이라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끔찍한 군대였으나 그들에게 둘러싸인 진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.</p>  
<p>'역시나...'</p>  
<p>예상했던 대로였다.</p>  
<p>이상하게 유독 이 주변에서만 검은 연기가 끝도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. 그걸 보고 메투스가 어떤 타입의 몬스터인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.</p>  
<p>'망령의 인도자.'</p>  
<p>놈이 가진 칭호는 예상을 확신으로 만들어 주었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메투스는 강력한 언데드 군단을 불러냈다.</p>  
<p>그리고 그 분야에서 진우는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.</p>  
<p>"일어나라!"</p>  
<p>으아아아아아아-!</p>  
<p>고통스런 비명들과 함께 언데드들의 그림자에서 병사들이 기어 올라왔다.</p>  
<p>그 수는 수백!</p>  
<p>메투스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으나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다.</p>  
<p>진짜는 따로 있었으니까.</p>  
<p>"길을 뚫어!"</p>  
<p>진우의 그림자에서 나온 검은 병사들.</p>  
<p>이쪽이 진짜였다.</p>  
<p>그림자 추출로 만들어 낸 병사 수백이 시간을 끄는 동안 악마성에 들어온 뒤로 착실히 성장시켜 두었던 진우의 직속 부대원들이 길을 만들었다.</p>  
<p>목적지는 하나!</p>  
<p>앞장선 이그리트와 아이언이 무서운 속도로 언데드들을 부수기 시작했다.</p>  
<p>메투스와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.</p>  
<p>'이 정도면 됐다.'</p>  
<p>진우가 앞으로 치고 나왔다.</p>  
<p>'질주!'</p>  
<p>['질주' 스킬의 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넓은 악마성 안을 뛰어다니다 보니 질주 스킬 레벨이 한 계단 더 올라갔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진우는 씩 웃었다.</p>  
<p>언데드 군단의 포위를 빠져나온 진우가 눈 깜짝할 사이 메투스 앞에 섰다.</p>  
<p>그때 진우와 메투스의 눈이 마주쳤다.</p>  
<p>'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?'</p>  
<p>진우는 승리의 여유가 담긴 눈빛을 보냈으나, 메투스는 진우의 시선에 흠칫 어깨를 떨었다.</p>  
<p>아니, 어깨를 떤 듯했다.</p>  
<p>'몬스터도 공포를 느끼나?'</p>  
<p>그런 생각도 잠시.</p>  
<p>진우의 단검이 수십 번의 잔상을 만들었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보스급 몬스터가 맥없이 쓰러졌다.</p>  
<p>수하를 조종하는 마법사 계열 몬스터들이 1:1 대치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지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.</p>  
<p>처음 메투스를 본 순간 지금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었다.</p>  
<p>진우는 단검을 창고로 돌려보냈다.</p>  
<p>곧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망령의 인도자 메투스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200,0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메투스의 팬던트에 봉인되어 있던 악마들의 영혼을 발견했습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220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한 번에 영혼 220개.</p>  
<p>생각지도 못했었던 성과였다.</p>  
<p>[수집한 영혼의 개수: 9,971]</p>  
<p>진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.</p>  
<p>'이제 얼마 안 남았네.'</p>  
<p>남은 영혼은 겨우 30개 남짓.</p>  
<p>악마 몇 마리만 잡아도 채울 수 있는 양이었다.</p>  
<p>퀘스트부터 얼른 끝내고 싶어진 진우는 서둘러 아이템을 챙기고 이동 마법진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[어디로 가시겠습니까?]</p>  
<p>"76층."</p>  
<p>\*\*\*</p>  
<p>미국 동부.</p>  
<p>악몽을 꾸는 듯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 대던 황동수가 벌떡 일어났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가장 먼저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.</p>  
<p>낯선 배경에 황동수가 고개를 두리번거렸다.</p>  
<p>"병...원?"</p>  
<p>꿈이.</p>  
<p>꿈이 아니었단 말인가?</p>  
<p>황동수는 턱밑을 흐르는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아 냈다. 그리고 동시에 발견했다. 자신이 입고 있는 환자복과 팔뚝에 꽂혀 있는 링거를.</p>  
<p>황동수의 인상이 무섭게 굳어졌다.</p>  
<p>이어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"할 말이 있으시면 어서 하고 가시죠."</p>  
<p>헌터관리국의 부국장.</p>  
<p>검은 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많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 천천히 황동수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"자네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네."</p>  
<p>뭘 묻고 싶다는 거지?</p>  
<p>황동수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며, 부국장이 물었다.</p>  
<p>"성일환이라는 남자... 그는 정말 마수가 맞았나?"</p>  
<p>"그럼 제가 멀쩡한 사람을 공격했단 말입니까?"</p>  
<p>"자네를 못 믿는 것은 아니네. 다만 내 눈으로 본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."</p>  
<p>부국장은 황동수에게 자신의 폰을 내밀었다.</p>  
<p>폰에서는 어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.</p>  
<p>"이건...?"</p>  
<p>"그날 인근의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일세."</p>  
<p>영상 안에서는 동양인 남자가 무너지는 관리국 건물로부터 직원들을 구해 내고 있었다.</p>  
<p>그 남자가 누군지 물을 필요는 없었다.</p>  
<p>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?</p>  
<p>기억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을.</p>  
<p>남자는 성일환이었다.</p>  
<p>부국장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.</p>  
<p>"나는... 여태 한 번도 인간을 도운 마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네. 그가 마수라는 자네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나?"</p>  
<p>"...틀림없는 마수입니다."</p>  
<p>"알겠네."</p>  
<p>부국장은 폰을 챙겨 넣고는 말을 이었다.</p>  
<p>"치료가 끝나면 관리국에 들려 주게. 몇 가지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으니."</p>  
<p>돌아서는 부국장에게 황동수가 물었다.</p>  
<p>"그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?"</p>  
<p>"자네와 싸운 직후 사라져 버렸네. 관리국에서 쫓고 있긴 하지만 자네를 쓰러뜨렸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남자가 과연 잡힐지는..."</p>  
<p>병실을 나가기 직전 부국장이 어렵게 입술을 뗐다.</p>  
<p>"혹시 그가 어디로 갈지 짐작이 가는 곳은 없나?"</p>  
<p>"..."</p>  
<p>황동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무는 걸 보고 부국장이 병실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부국장이 나가자마자 황동수는 거칠게 링거를 뽑아 버렸다.</p>  
<p>"젠장!"</p>  
<p>굴욕적인 패배였다.</p>  
<p>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은 성일환의 발에 목이 밟혀 있었다.</p>  
<p>그것도 바닥에 누워 꼴사납게.</p>  
<p>켁켁대는 자신에게 성일환은 말했다.</p>  
<p>-한국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마라.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, 너를 위해서. 너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다.</p>  
<p>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다.</p>  
<p>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다.</p>  
<p>'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?'</p>  
<p>그게 무슨 뜻일까?</p>  
<p>눈을 감지도 못할 만큼 처참하게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인가?</p>  
<p>'감히... 나를 협박해?'</p>  
<p>황동수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.</p>  
<p>마수에게 진 것도 모자라 씻지 못할 치욕이 생기다니.</p>  
<p>'놈이 어디로 갈 지는 알고 있다.'</p>  
<p>다시 놈을 잡고 만다.</p>  
<p>그런데 어떻게?</p>  
<p>놈의 정체가 마수든 아니든 간에 강하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.</p>  
<p>'놈을 잡으려면 장비가 필요해.'</p>  
<p>다행히 장비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.</p>  
<p>'길드에 연락하자.'</p>  
<p>황동수가 속한 스케빈저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길드였다.</p>  
<p>스케빈저가 보유하고 있는 아티팩트들의 가격만 따져도 작은 나라의 한 해 예산을 가볍게 넘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.</p>  
<p>'아티팩트만 갖추면 문제없다.'</p>  
<p>황동수의 두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다.</p>  
<p>한국으로.</p>  
<p>황동수는 목적지를 정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[고위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2,2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[노예 악마의 영혼 3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'끝났다!'</p>  
<p>진우가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.</p>  
<p>운 좋게도 마지막에 잡은 몬스터에게서 네 개의 영혼을 얻었다. 그 결과 퀘스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.</p>  
<p>[보유한 영혼의 개수: 10,001]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일반 퀘스트: 악마의 영혼을 모아라! 1]을 완료하였습니다.</p>  
<p>[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'당연하지.'</p>  
<p>대답이 끝나자 보상 목록이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래와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보상 1. 모든 아이템 중 택1</p>  
<p>보상 2. 보너스 스탯 +20</p>  
<p>보상 3. 공개되지 않는 보상</p>  
<p>[전부 수락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다른 보상들도 눈에 확 띄지만 현재 진우의 가장 큰 관심사는 1번이었다.</p>  
<p>1번을 위해 퀘스트를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.</p>  
<p>'보상 1 수락.'</p>  
<p>띠링!</p>  
<p>[모든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]</p>  
<p>[원하는 아이템이 있습니까?]</p>  
<p>원하는 아이템이라.</p>  
<p>당연히 있었다.</p>  
<p>퀘스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진우는 생각해 둔 아이템이 있었다.</p>  
<p>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?</p>  
<p>그날 이후로 늘 궁금했었다.</p>  
<p>그게 아이템으로 취급되는지는 모르겠다만 밑져 봐야 본전이니까.</p>  
<p>[모든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]</p>  
<p>[원하는 아이템이 있습니까?]</p>  
<p>시스템이 재촉하듯 다시 물어왔다.</p>  
<p>고민 끝에 진우는 대답했다.</p>  
<p>"저주받은 랜덤 박스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